

<건축, 토탈아트 혹은 레디메이드>

남성택(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2. 레디메이드(Ready-Made)와 건축: 익명의 오브제들

브르노 태생으로 석공의 아들이었던 아돌프 로스(Adolf Loos, 1870-1933)는 3 년간 미국 체류를 끝내고 1896 년 비엔나로 귀국해 건축가로 활동한다. 그의 이름을 처음 알리게 된 것은 그의 건축 작품이 아니라 기고문들이었다. 로스의 글들은 당시 제체시온 건축가들을 문화적 쇠락을 이끈 장본인들로 묘사한다. 로스는 장식을 통해 예술과 기술을 통합시키려는 모든 건축-예술 운동에 반대한다. 역사적으로 예술과 기술은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 발전해 왔고, 그 덕에 예술작품과 기능용품은 더욱 순수하게 진보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순수 예술을 기술의 영역으로, 또는 순수 기술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신성모독이었다. 그는 응용예술의 예술가-건축가들을 순수한 예술을 상업을 위해 파는 '매춘부'라 비난하기까지 했다. 반면에 로스는 장인을 옹호했다. 도자기를 디자인 하는 예술가들이 '제도판' 위에서 그려가며 작업한다면, 도공은 실제 도구와 재료를 다루며 진짜를 구워낸다. 예술가의 형태는 상상된 것이라면, 장인의 형태는 결과로서의 현실이었다.

로스의 사상은 스위스 라쇼드퐁 출신으로 파리에 정착한 젊은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에게 이어진다. 화가이기도 했던 그는 1918 년부터 순수주의(Purism) 운동을 주창하며 표준(Standard)화된 산업 오브제들만을 대상으로 정물화를 그렸다. 잡지와 책을 통해 선언된 그의 사상은 1920 년대의 일련의 전시와 주택작품들을 통해 실현된다. 순수주의 회화처럼, 그가 제시하는 공간은 레디메이드 오브제들로 구성된 삼차원화된 정물화이자 "진실한 박물관"으로서의 전시였다.

20 세기의 레디-메이드(ready-made) 현상은 전방위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원래 산업혁명의 결실로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제품들을 총칭하던 신생 산업 용어는 프랑스 화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에 의해 새로운 예술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는 실제 존재하는 일상 오브제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미술 작품으로 전시하는 예술을 레디메이드(readymade)라 일컫는다. 예술가들이 관여하지 않은 평범한 형태가 주목 받기 시작한다.

Werkbund 독일공작연맹

- Peter Behrens, artistic director of AEG (Allgemeine Elektrizitäts-Gesellschaft), 1907
- AEG 아크등 디자인 비교 Comparison by Stanford Anderson, Peter Behrens and a New Architecture for the Twentieth Century, 2000
- 쾰른 전시회 Exposition du Deutscher Werkbund, Cologne, 1914
- Karl Arnold, Caricature, Simplicissimus, 1914. "Individual chair" (앙리 반 드 벨드 van de Velde) vs. "Type-chair" (헤르만 무테지우스 Muthesius) vs. "Chair for sitting on" (익명의 장인)
- Hermann Muthesius (1861-1927) and the cration of Deutscher Werkbund in 1907. "소파 쿠션에서 도시 건설까지 Vom Sofakissen zum Städtebau"

Bauhaus 바우하우스

- Bauhaus, founded at Weimar in 1919 (Dessau from 1925 to 1932, Berlin from 1932-1933)
- 교수진 사진: Walter Gropius, Ludwig Mies van der Rohe, Hannes Meyer, Johannes Itten, Lyonel Feininger, Gerhard Marcks, Oskar Schlemmer, Paul Klee, Wassily Kandinsky, Theo van Doesburg, El Lissitzky, Laszlo Moholy-Nagy, etc.
- Bauhaus, Ausstellung, Weimar, 1923

Adolf Loos 아돌프 로스 & Le Corbusier 르 코르뷔지에

- Adolf Loos, 카페 뮤지움 Café Museum, 1899
- Le Corbusier, 오늘의 장식예술 L'art décoratif d'aujourd'hui, 1925; 에스프리 누보 전시관 Pavillon de l'Esprit nouveau, 1925; 사보아 주택 Villa Savoye, 1929 ; 건축가 아파트 Appartement-atelier de Le Corbusier, 1931-33, 24, rue Nungesser et Coli, Paris

Marcel Duchamp 마르셀 뒤샹

- Marcel Duchamp, 계단을 내려가는 벗은 몸 Nu descendant un escalier, 1912
- Marcel Duchamp, 자전거 바퀴 Roue de bicyclette, 1913 ; 병건조대 Porte-bouteilles, 1914 ; 부러진 팔에 앞서 (눈삽) In Advance of the broken arm, 1915 ; 샘 (소변기) Fountain, 1917 (refused by The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